

gLOBAL FORUM



전략적 글로벌 사업개발 필요

벤처기업 글로벌 사업개발전략 포럼 개최

협회가 주최하고 인케코퍼레이션이 주관한 '벤처기업의 글로벌 사업개발전략 포럼'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인케 임원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마케팅 담당자, 금융기관 전문가, 기술평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협회 조현정 차기 공동회장과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은 축사에서 벤처기업 글로벌화와 인케코퍼레이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멘스의 투자 유치로 글로벌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다산네트웍스의 남민우 대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대표, 아이리버 브랜드로 MP3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레인콤 양덕준 대표, 그리고 종합상사 출신으로서 B2B 기업으로 성공한 엔투비 김봉관 대표가 글로벌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포럼 참석자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인케코퍼레이션 전하진 대표가 인케코퍼레이션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주 최: 벤처기업협회 | 주 관: 인케코퍼레이션 | 후 원: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 사 회: 정희훈 (이커뮤니티 대표), 임윤철 (기술과치 대표)
주제발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양덕준 (레인콤 대표), 김봉관 (엔투비 대표)



협회 조현정 차기 공동회장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

벤처기업의 글로벌사업 전략 사례

남민우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휴믹스나 레인콤처럼 독자 브랜드로 성장하는 방법도 있고, 다산네트웍스처럼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시장의 주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벤처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벤처성장의 자양분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황철주 사업초기 우수한 기술개발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 후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은 해외시장진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벤처기업이 글로벌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영업 및 마케팅, 관리시스템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양덕준 지난 30년 간 우리 경제사에서 신생기업이 30대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전무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0대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엔씨소프트가 유일하다. 이런 원인은 단일제품 성장의 한계와 새로운 성장동력 및 제품다변화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술적 기업구조에서 기업의 독립성,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전략적 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패의 표본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된 기업에 대해 전략적 글로벌화의 기회를 제공할 인케코퍼레이션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봉관 그간 우리 벤처기업들은 아이디어는 좋으나 제품 자체가 화려하고, 기술력은 있을지 모르나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평가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해외마케팅을 위해서는 자사에 대한 냉정한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전략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 또 현지 정보수집 및 빠른 대응창구를 갖추어야 하고, 해외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벤처종합상사와 이해를 바탕으로한 역할분담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야 한다.

글로벌사업을 위한 인케코퍼레이션의 역할과 비전

인케코퍼레이션은 전 세계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으로서 한민족글로벌 벤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형성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벤처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GLP(Global Launching Program)를 통해 글로벌사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들이 300여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Nominee기업으로 등록되어 전 세계 OBP(Overseas Business Partner) 또는 DBP(Domestic Business Partner)들에게 소개 되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 기회를 주기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스타기업 발굴이라는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자하는 파트너가 나타나면 인케코퍼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Professional Adviser, 인케 해외 의장들, GVC(Global Venture Consultant) 등이 함께 하는 Global Business Consulting Service를 지원하게 된다. GBCS는 거래를 효과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두 참여시켜 실질적인 계약을 추진한다.

또, Global Venture Consultant를 양성하기 위해 GVCP(Global Venture Consultant Program)를 운영한다. 과거 종합상사 출신의 전문인력이나 해외 전문가들에게 벤처기업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를 교육시켜 전문적인 컨설턴트로 양성한다.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주거나 Financing Service를 통해 신뢰도 증대 및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INDE Fund를 조성하여 운용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인케코퍼레이션은 새로운 벤처기업을 조기에 발견하여 글로벌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을 탄생시키며 그에 따른 이익을 다시 초기 기업 발굴에 사용하여 국내 벤처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것이다.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레인콤 양덕준 대표



엔투비 김봉관 대표